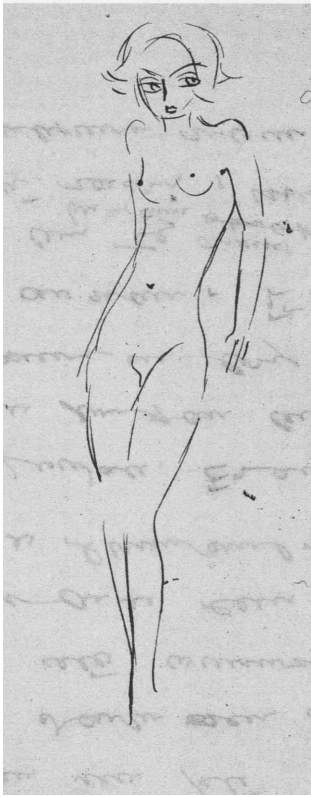


‘나’를 변화시키는 어린 왕자 인문 여행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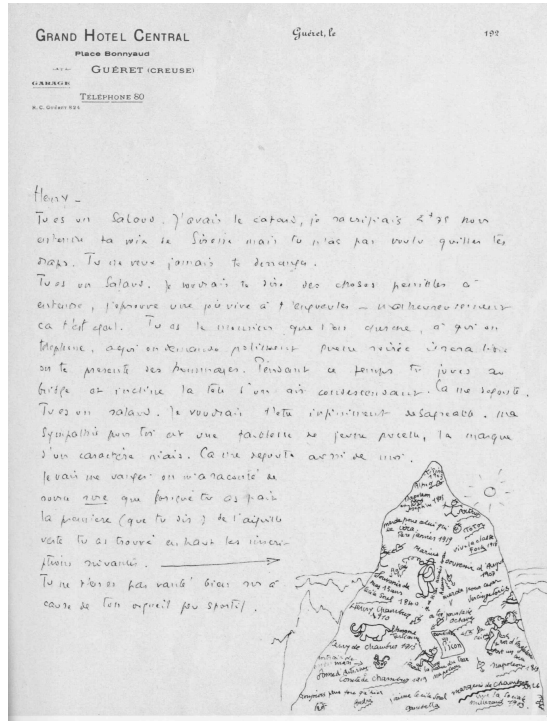
어린 왕자와 미술 세계

화가 생텍스의 열정

생텍스는 『어린 왕자』에서 자신이 여섯 살에 화가의 꿈을 접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의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오히려 그의 화가에 대한 열정은 나날이 심화하여 간듯하다.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남긴 시와 편지, 저술 원고에서 발견되는 데생들이 이를 증명해준다. 기대하던 글과 이미지의 조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기도 하고 과감히 폐기해버린 경우도 많았다. 예상 못 한 죽음으로 인해 생텍스의 마지막 작품이 된 『어린 왕자』는 아마도 글과 그림의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하던 생텍스가 마침내 이루어낸 화가로서의 꿈의 결실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휘와 문장이 지니는 언어 표현의 한계성을 그림으로 보완하려는 화가 생텍스의 열정이 그림 동화 『어린 왕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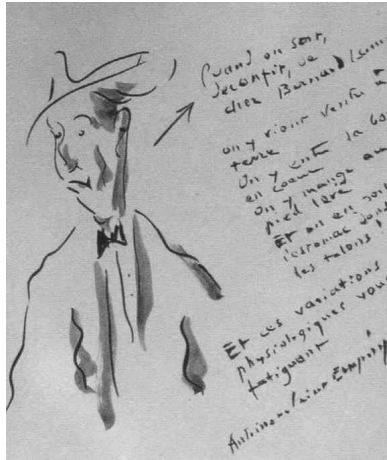
『사막의 지혜(Wisdom of Sands)』 수고 뒷면에 그린 나무. 나탈리 데 발리에르 Nathalie Des Vallières), 『Saint-Exupéry, Art, Writings and Musings』, Rizolli, 2008.



앙리 드 세곤느(Henri De Segone)에게 쓴 편지(1925), 왼쪽 아래에 칼리그람의 시도가 보인다. 『Saint-Exupéry, Art, Writings and Musings』, Rizolli, 2008.

열아홉 살이 된 생텍스는 파리의 명문 생루이 고등학교(Lycée Saint Louis) 졸업반 재학 중 해군사관학교 입시에 지원하였다. 생애 전체를 통해서 열 개의 발명 특허를 소지하게 될 생텍스는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도 문학 출제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백지 답안을 제출하여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생텍스는 파리의 국립미술학교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 Arts)에 입학하여 십오 개월간 수학하며 화가 지망생들과 교류를 통해 회화와 건축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다.

생텍스는 1920년대 군복무 시절이나 트럭 외판원 시절에도 끊임없이 그림으로 자신의 일상을 표현했다. 193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 마치 화가 이중섭이 구겨진 담배 은박지를 펼쳐 가난한 가족의 복작거림을 새기듯, 식당 메뉴, 책과 편지지 여백에 인생 잡사의 고달픔, 나무의 아름다움, 친구들의 풍자적 초상 등 자신의 실력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꾸준히 지속된 텍스트와 데생이 어우러진 글쓰기를 위한 화가로서의 재능은 초현실주의 화가인 콘수엘로 순신(Consuelo Suncin)과 결혼하면서 한층 성숙해졌다.



1942-1943년 무렵 생텍스가 그린 화가 베르나르 라모트의 초상. 에콜 데 보자르에서 만난 그는 생텍스의 『아라스 비행 (Flight to Arras)』 삽화를 그렸다. (『어린 왕자 백과사전』, 평단, 2016).

초현실주의자들과 생텍스 부부

생텍스의 부인 콘수엘로 순신은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화가이자 조각가였다. 생텍스와 순신은 동시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의 빈번한 교류를 가졌는데 특히 천재 화가로 명성을 날리다 21세의 나이에 화단과 결별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과는 매우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순신의 작품은 화가로서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겨 놓았다. 특히 르네 마그리트의 중산모자(derby hat) 이미지를 이방인의 시각으로 자유롭게 풀어낸 「중산모자를 쓴 남자(Homme chapeau melon)」에서 그녀의 무의식 세계를 교감할 수 있다. 『어린 왕자』의 장미를 연상하면 그녀의 그림이 한층 친밀하게 다가온다.



「중산모자를 쓴 남자(Homme chapeau melon)」, 콘수엘로 순신이 그린 생텍스 초상, 『생텍 chapeau melon)』, 콘수엘로 쥐페리의 전설적 사랑(Un Amour de légende)」, 2006, IMAGE.
순신, 1942.



콘수엘로 순신의 자화상, 그녀가 그린 생텍스 초상화 뒷면에 그린 그림. 콘수엘로 순신, 『생텍쥐페리의 전설적 사랑』.

생텍스는 뒤샹의 체스 상대로 잘 알려져 있다. 생텍스가 어린 왕자와 장미 이야기를 신뢰, 의심, 분석, 추론 혹은 종합, 열거, 형식적 귀납법 같은 데카르트의 '정신지도규칙(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내듯, 뒤샹 역시 데카르트의 방법론에 매료되어 수학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체스를 통해 예술의 진정성을 음미하고 있었다. 데카르트의 수학과 철학을 공유하던 두 예술가의 우정이 돈독해진 것이다. 생텍스의 부인은 1941년 프랑스에서 미국의 롱아일랜드로 이주하여 대저택을 구입하였다. 생텍스가 『어린 왕자』를 집필하게 되어 순신이 진정한 '어린 왕자 집'이라 부르게 될 이곳에 입주하면서 순신은 인테리

어 벽지 색상을 선택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 뒤샹은 당시 순신의 내면세계를 위로하는 색상들을 제시해줄 정도로 순신과 친밀한 사이였다. 프랑스어, 영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순신은 미국에 귀화한 뒤샹과 르누아르 이외에도 당시 미국에 머물던 망명 예술가들 특히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같은 화가들 그리고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 장 가뱅(Jean Gabin),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 마를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같은 배우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우정을 나누던 화단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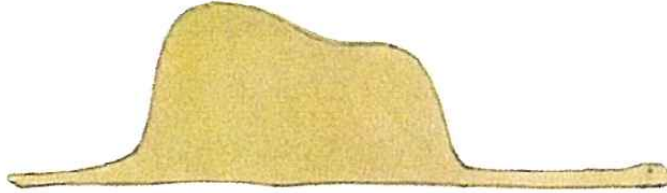
뉴욕의 한 카페에서 체스를 두고 있는 생텍스, 콘수엘로 순신, 『생텍쥐페리의 전설적 사랑』.

보아뱀과 마그리트의 중산모자

생텍스 역시 초현실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들이 출간해오던 동인지 「거울(Miroir)」에 생텍스의 손을 본뜬 핸드 트레이싱(hand tracing)이 실렸을 정도로 초현실주의자들과 생텍스는 서로 교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생텍스의 속이 들여다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어른들이 모자라고 우기듯, 고정 관념을 지닌 어른들의 경우 일반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평단 역시 일반적 경험과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대립시키고,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달리 극단을 피하고 개별성과 보편성이 만나는 접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초현실주의자들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보아뱀의 그림에서 자신들이 꿈꾸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이상적 이미지를 발견하였다. 특히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가 그린 중산모자(derby hat)와 생텍스가 그린 꼬끼리를 통째로 삼키는 보아뱀이 이들의 가교 구실을 하였다. 마그리트는 “그림의 제목은 해설이 아니며 그림은 그 제목의 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생텍스가 『어린 왕

자』에서 하고 싶은 말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말은 오해의 근원이며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자는 것이다.



어른들이 모자로 단정해버린 보아뱀, 생텍스, 『어린 왕자』, 1943.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하는 보아 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뱀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이 필요한 법이다.” (『어린 왕자』 제1장)



「중산모자를 쓴 남자 (L'Homme au chapeau melon)」, 르네 마그리트, 1964.

앙드레 브르통을 교주로 하는 초현실주의 그룹의 토대는 보들레르 시의 상징성, 프로이트의 무의식, 맑스의 계급투쟁에 있다. 모든 부르주아 문화를 타파하는 것이 그들의 국시였다. 『어린 왕자』에서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로 소개한 레옹 베르트와 달리 초현실주의 그룹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던 생텍스는 계급투쟁 너머로 존재하는 인간성의 유대를 궁극의 목표로 삼아 오직 직업 속에서 가능한 실천의 문학을 추구하였다. 사실 일촉즉발의 긴박한 현실의 갈등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평화 문학에 전념해오다 전쟁이라는 물리적 현실을 겪고 나서야 이를 깨달은 초현실주의자들과 달리 생텍스는 이미 유럽이 전쟁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전쟁 문학이라는 비행 소설의 거대한 공적을 이룬 선각자였다. 생텍스는 정신적 장애인 집합소나 다름

없는 정파에 묶인 이데올로기적 미술 교육에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새로운 그림이라는 것이 눈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현실에서, 민중에게 화가를 고르게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역설이란 말인가. 모든 요인을 거부할 것.

『수첩(Carnets)』, p.201, 갈리마르, 1953)

생텍스는 하나의 관점을 정해 놓고 그림을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그림을 이미지로 보지 않고 코드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미술 평론계나 문화부 기자들의 작품 설명 요구에 야유로 답하는 마그리트의 비판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지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며 지식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텍스는 글쓰기와 관련하여 그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명언을 남겼다. 약혼녀 루이즈 드 빌모랭(Louise de Vilmorin)과 헤어진 1923년 무렵 그가 고교 동창으로 베르트랑의 누이 르네 드 소신느(Renée de Saussin)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물을 바라보는 본질적 자세와 관련하여 음미해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쓰는 법을 배워서 안 됩니다. 보는 법을 배워야지요. 쓴다는 직업은 결과적으로 생기는 어떤 것이지요.

이 말을 회화에 적용해보면 그리는 법을 배워서 안 되며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하며 그리는 직업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린 왕자』에서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준 비밀과 같은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표현 아닌가.

그림 동화 『어린 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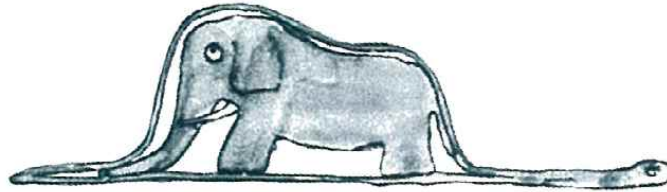
『어린 왕자』는 그림 동화이다. 이야기는 작가가 여섯 살 시절 읽은 원시림 이야기책에 관한 단상으로 시작한다. 생텍스는 씹지도 않고 삼킨 맹수를 소화하느라 여섯 달 동안 잠만 자는 보아뱀 이야기를 읽고 정글 속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의 결과를 글로 표현하고 보아뱀 그림을 추가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림 동화인 것이다.

삽화를 텍스트의 보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위주로 『어린 왕자』를 읽는다면 생텍스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기 힘들다. 생텍스는 그림을 장식물로 삽입한 것이 아니다. 그의 삽화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스타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림을 읽어내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작가는 정글 속 모험에 관한 그의 인생의 첫 성찰의 결과인 이 그림으로 동화를 시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책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를 모자처럼 보이는 보아뱀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고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 라고 답했다.

위에서 살펴본 보아뱀 그림을 먼저 제시한 작가가 다음으로 한 말은 그 그림이 무엇을 그렸는지에 관한 설명이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하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 속을 그렸다.” 그 그림이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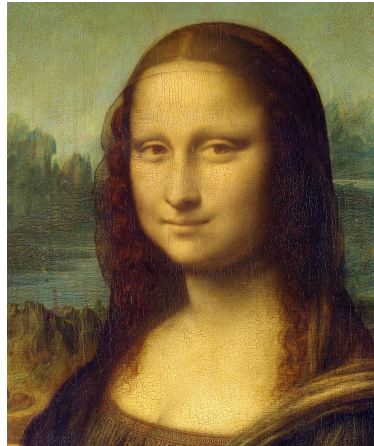
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린 오브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뿐이다. 그 결과 탄생한 두 번째 그림은 다음과 같다.



생텍스는 이 그림이 코끼리를 삼키는 보아뱀을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할 뿐이다. 그림에 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작가의 미술관이 여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현대인은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렸는지 묻기보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 그리고 그 의미는 매우 관습적인 틀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Mona Lisa)」를 살펴보자. 1500년경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데 조콘다(Francesco del Giocondo)의 부인 리자 게라르디니(Lisa Gherardini)를 그린 초상화로서 높이 77cm, 폭 53cm의 미완성 그림이다. 「모나리자」를 언급하면 즉각적으로 신비로움이 연상될 정도로 우리는 그 신비로움이라는 코드에 익숙해져 있다.

모나리자의 신비로움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모나리자」를 유독 그 미소의 신비로움을 통해 강조하면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회화를 증명사진처럼 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소 짓는 현실의 얼굴과 몽상적인 비현실의 배경, 오브제가 이루는 배치로서의 구성, 작가의 그림에 대한 사유, 작품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함께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작가가 그림을 통해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적절한 감상 자세일 것이다.

이러한 증명사진을 대하듯 그림을 해설하는 평단의 감상 방식에 반기를 든 화가가 바로 생텍스의 체스 상대 마르셀 뒤샹이었다. 그는 모나리자의 얼굴이 담긴 엽서 크기의 이미지 아래에 'L.H.O.O.Q'(엘라쇼오귀)라는 텍스트를 병기하였다. 이 프랑스 철자를 연독하면 "엘라쇼오귀(Elle a chaud au cul)"라고 발음하게 되는데 "그 여자 엉덩이는 뜨거워."를 의미한다. 누구나 그 미소 때문에 신비하게 여기는 여인의 이미지를 음탕한 여인의 이미지으로 전환하며 의미의 틀을 깨버렸다.



「라 지오콘다(La Joconde)」,
일명 「모나리자(Mona Lisa)」,
C.E. 1503-1506 사이, 루브르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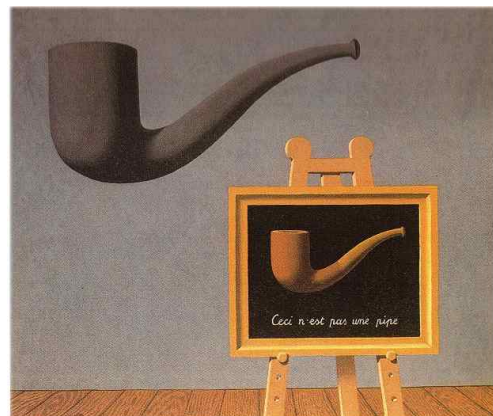


마르셀 뒤샹이 엮서
에 그린
「L.H.O.O.Q.」(1919)

그런데 여기에서 뒤샹의 의도와는 달리 관객은 역설적 난관에 부딪힌다. 이후 유명한 화상들조차 그림의 의미를 작가에게 물어본 후에야 비로소 그림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렸는지 묻기보다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현상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감상하며 무엇을 그렸는지보다는 그림의 의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 왕자의 보아뱀을 모자로 해석하는 것도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뱀을 그린 그림은 화가의 보는 법에 따라 그린 뱀이며 모나리자 그림은 화가의 보는 법에 따라 그린 모나리자일 뿐이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모나리자를 보며 떠오르는 이미지(心象)을 즐기면 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탄생한 그림이 저 유명한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La trahison des images)」이다.



「이미지의 배반」, 르네 마그리트,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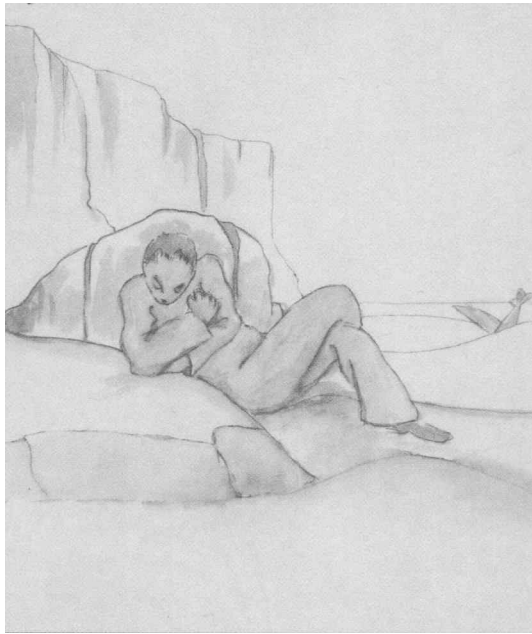


「두 개의 비밀(Les deux mystères)」,
르네 마그리트, 1966.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해 명료하게 답한 것은 예술가가 아니라 철학자 미셸 푸코이다. 그는 위의 그림은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를 그린 데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그림 속 오브제는 그 무엇을 그린 이미지이지 실체가 아니다. 마그리트의 그

림의 텍스트나 이미지 어디에도 파이프는 실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상의 대상으로 이미지는 그 소재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있기에 가치를 지닌다. 빈센트의 신발과 그가 그린 신발 그림들 가운데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생텍스의 회화관



생텍스가 그린 고독한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 『Saint-Exupéry, Art, Writings and Musings』, Rizzoli, 2008.

비행사 생텍스는 사막의 별을 마주하고 진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발견하고 기록한 비행일지를 그림으로 남기고 소설로 발표하였다. 그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시착하여 죽음을 마주한 절대고독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인 어린 왕자를 발견하였다. 어린 왕자 친구 뱀의 말처럼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웠다. 그는 진솔한 대화의 상대도 없이 고독하게 살았다고 슬회하고 있다. 그를 고독을 달래준 것은 그림이었다. 그는 사막여우에게 보는 법을 배웠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사람들의 땅』에서 생텍스가 “늙은 촌부조차도 그렇게 그림 하나를 통해서만 자신의 신을 만난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자. 『어린 왕자』에서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텍스가 유명한 화가들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생텍스가 그린 고독한 초상화와 커리커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피카소가 그린 카사헤마스(Casagemas)의 죽음을 추모하는 청색 시대 작품들 그리고 빈센트의 말년 초상화들이 떠오른다. 그 인물들의 눈은 마음의 눈이다. 그리고 빛나는 별이다. 그리고 별은 꽃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



생텍스가 어린 왕자 수사본 원고에 그린 아름다운 별 나무(『어린 왕자 백과사전』, 평단, 2016).